

‘양 무늬’ 넥타이 맨 金 총리 “사회적 약자와 동행”

고위당정협·취임식 복장 ‘눈길’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
‘넥타이’로 정치신념 실천 선언
李 대통령과 결 같이 하는 행보

지난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다소 눈길을 끄는 복장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파란색 바탕에 작은 흰 양(羊) 무늬가 반복된 넥타이였다. 단순한 패션이 아닌, 국정 철학을 품은 상징이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야말로 국정의 모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넥타이에 새겨진 ‘양’은 순하고 힘없고 보호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을 자주 상징한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는 붉은색 바탕에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댔다.

김 총리는 준비한 취임사 외 별도 발언을 통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댔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든, 빨간 넥타이를 매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면서 “약자를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평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정치 철학의 중심 축으로 강조해왔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근 총리로서의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언과 정책 기조 속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보고 회동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7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식에서 붉은색 바탕에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일관되게 ‘약자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표현들이 반복돼 왔다.

김 총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부터 “복지는 성장의 조건이자,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령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민생 중심 정치, 특히 의료·돌봄·주거·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정치’ 실현도 강조해왔다.

정치의 본령은 ‘현장과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밝혀왔고, 이를 ‘약자를 위한 디딤돌 정치’로 표현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때, 김 총

리는 “약자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며, “사회적 연대와 품격 있는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총리의 양 무늬 넥타이는 ‘힘없고 말없는 존재들과 함께하겠다’는 자신의 정치 신념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곽지혜 기자

李 대통령, 金 총리에 “의정갈등 해결 나서 달라”

주례회동…“안전·질서·민생 챙겨달라”
“광복 80주년 행사 성대하게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회동은 지난 4일 김 총리가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국무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부차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고급 인재 확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이나 장기외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광복회 등을 중심으로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며 “80주년인 만큼 성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정례적으로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할 가능성을 두고 대화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그때 교황이 한국에 오실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언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2025년 광산구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기간 2025. 7. 1.(화) - 7. 31.(목)
*신청자 미달 시 연장

홈 CCTV
wifi 필수

휴대용비상벨

문열림센서
wifi 필수 *본인 직접 설치

창문 잠금장치
*본인 직접 설치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광산구에 주소를 둔 임차인 여성 1인가구
- 주택(다세대/연립주택포함), 오피스텔 거주자

☑ 지원제외 : 아파트 거주 및 자가 소유자, 기 지원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왼쪽 QR코드 접속)
※온라인신청 어려울 시 방문신청(광산구청 여성아동과) 가능

제출서류 추후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 선정취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뒷자리 가리고 제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미포함, 1개월 이내 발급)

선정방법

- 신청대상 기준 필수 충족
- 우선순위자 중 순위가 높은 자
(①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②장애인가구 ③보장기관 추천자)
-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주거형태(지하·반지하·1·2층) 및 보증금액 고려

※ 총 지원가구는 50가구로 신청자격 되더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방법
추후 개별 문자 통지 / 물품 방문 전달

문의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3605)

광산구